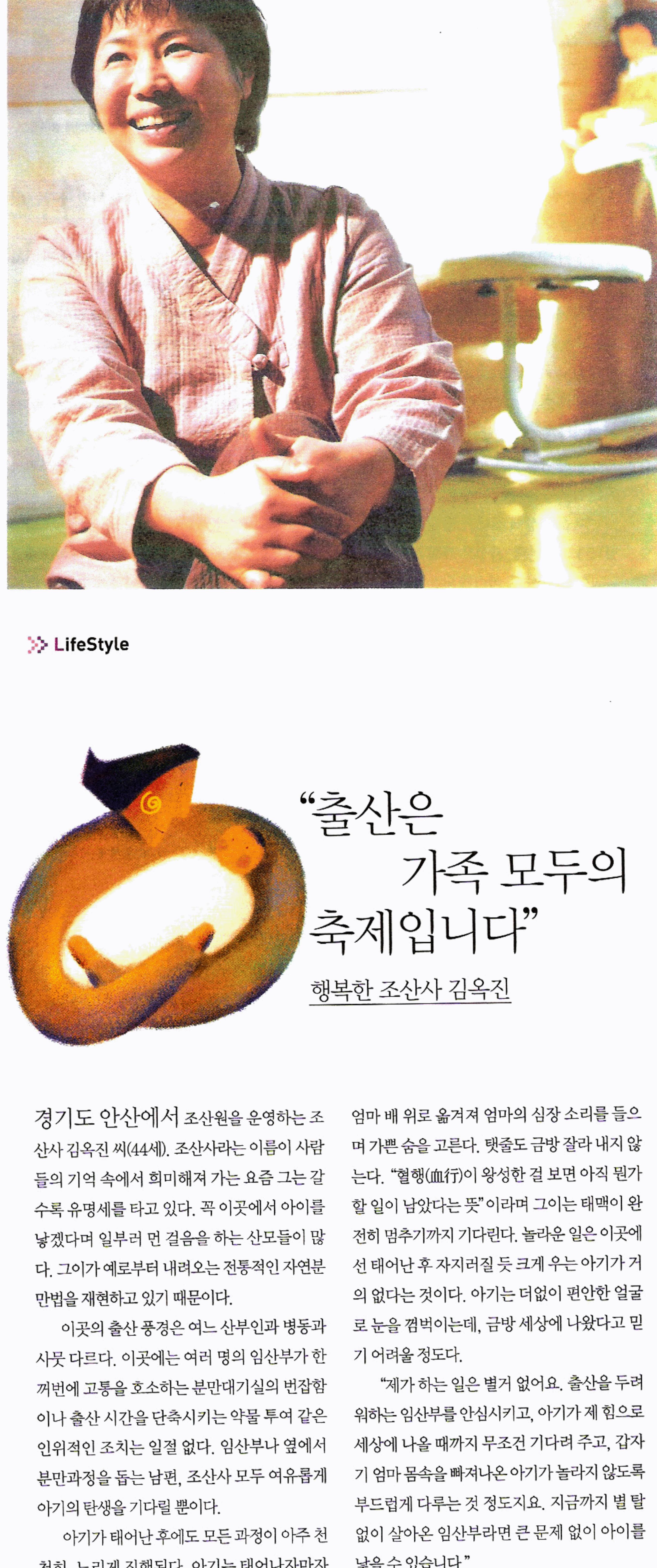


이 시대 리더들의 이야기



## ▶ LifeStyle



**“출산은  
가족 모두의  
축제입니다”**

행복한 조산사 김옥진

경기도 안산에서 조산원을 운영하는 조산사 김옥진 씨(44세). 조산사라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희미해져 가는 요즘 그는 갈수록 유명세를 타고 있다. 꼭 이곳에서 아이를 낳겠다며 일부러 먼 걸음을 하는 산모들이 많다. 그이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자연분만법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의 출산 풍경은 여느 산부인과 병동과 사뭇 다르다. 이곳에는 여러 명의 임산부가 한꺼번에 고통을 호소하는 분만대기실의 번잡함이나 출산 시간을 단축시키는 약물 투여 같은 인위적인 조치는 일절 없다. 임산부나 옆에서 분만과정을 돋는 남편, 조산사 모두 여유롭게 아기의 탄생을 기다릴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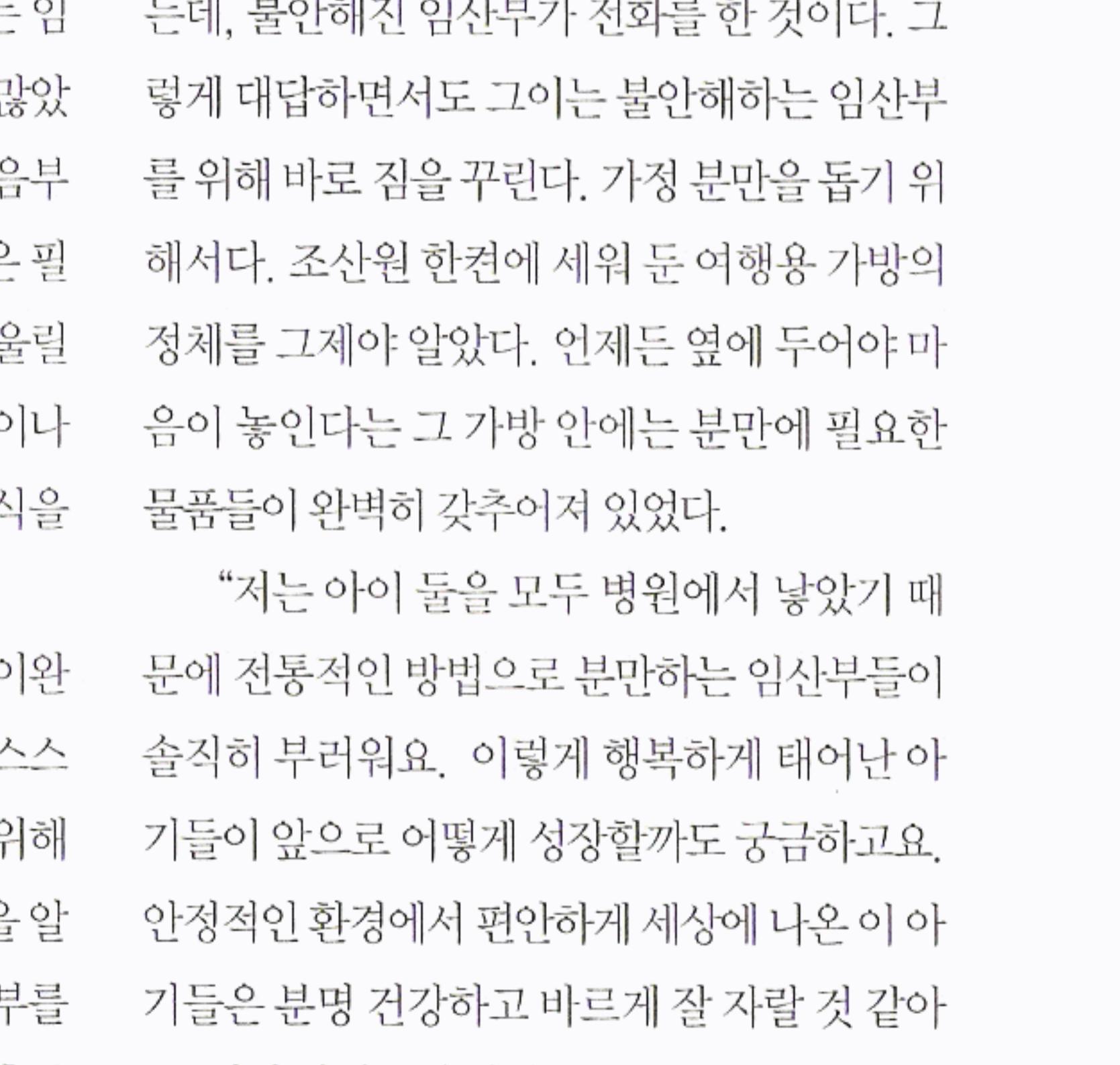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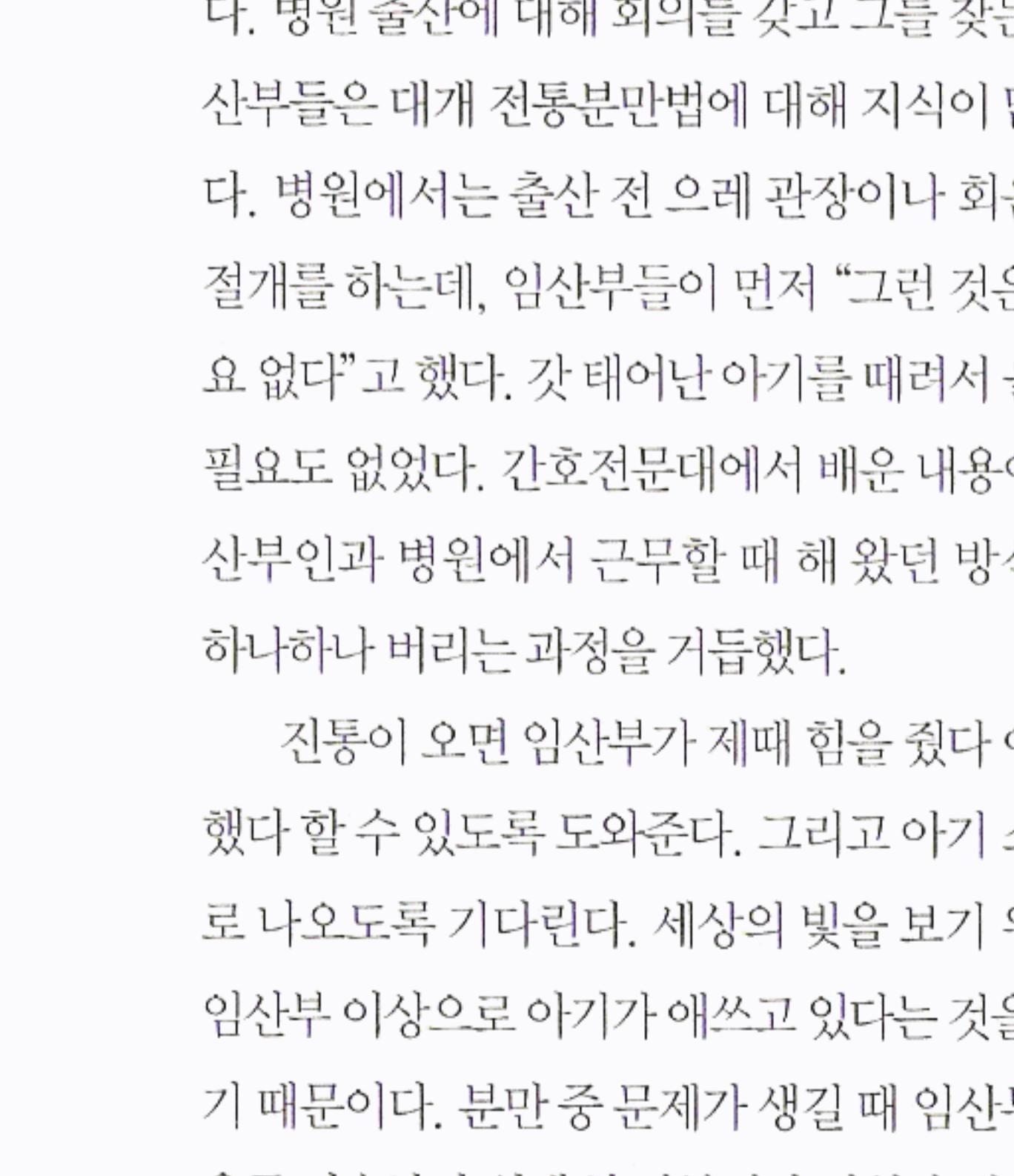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모든 과정이 아주 천천히, 느리게 진행된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배 위로 옮겨져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가쁜 숨을 고른다. 맷줄도 금방 잘라 내지 않는다. “혈행(血行)이 왕성한 걸 보면 아직 뭔가 할 일이 남았다는 뜻”이라며 그이는 태백이 완전히 면추기까지 기다린다. 놀라운 일은 이곳에 선 태어난 후 자지러질 듯 크게 우는 아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아기는 더없이 편안한 얼굴로 눈을 깜빡하는데, 금방 세상에 나왔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제가 하는 일은 별거 없어요. 출산을 두려워하는 임산부를 안심시키고, 아기가 제 힘으로 세상에 나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 주고, 갑자기 엄마 몸속을 빠져나온 아기가 놀라지 않도록 부드럽게 다루는 것 정도지요.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살아온 임산부라면 큰 문제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066 TOP Class 200604

TOP Class 067



| 김옥진 씨가 경기도 안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산소 풍경. 한쪽 벽면에는 이곳에서 태어난 아기들과 가족 사진이 빽빽하게 붙어 있다.

임산부와 아기의 심신을 최대한 배려하는 그이의 조산법은 이미 입소문을 타고 임산부들 사이에 화제다.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낳고 싶어 하는 임산부들이 많아지면서 그는 각 가정으로 출장 가서 분만을 돋기도 한다. 낯선 곳보다 자신의 집에서 훨씬 편안하게 아이를 낳는 임산부를 보고 가정 분만도 시작했다고 한다. 가정 분만의 가장 큰 장점은 임산부가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출산 후立即 퇴실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즘 세상에 집에서 애 낳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데, 사실은 가정 분만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아이를 낳는 데는 별다른 시

술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때가 되면 아기는 스스로 세상에 나오니까요.”

산부인과 병원의 문제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그는 원래 산부인과 간호사였다. 수원 간호 전문대를 졸업하자마자 산부인과 병원에 취직해 20여 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다. 그러나 병원에서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회의가 많았다고 한다. 별 문제가 없는 임산부까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것이나 남편 없이 혼자 분만실에서 애쓰는 임산부들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싶었다.

두 아이를 낳으면서 스스로 임산부가 되어 병원 출산을 체험한 후에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다. 스스로도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사실 수입도 병원에서 월급 받을 때보다 훨

씬 적고, 의료 분쟁의 소지도 많아요. 남편한테 농담 삼아 ‘이 일 하다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예요. 밤이든 새벽이든 임산부에게서 연락이 오면 바로 뛰쳐나가야 하니 1년 내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없지요. 그래도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 행복한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다는 기쁨, 우리나라 출산문화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킨다는 보람으로 이 일을 합니다.”

출산은 고통이 아니라 임산부나 아기, 가족 모두에게 ‘축제’여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이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임산부의 다급한 전화에 그이는 “그 정도면 아직 멀었는데…”라고 웃으며 답한다.

상태를 보아하니 출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데, 불안해진 임산부가 전화를 한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그이는 불안해하는 임산부를 위해 바로 집을 꾸린다. 가정 분만을 돋기 위해서다. 조산원 한켠에 세워둔 여행용 가방의 정체를 그제야 알았다. 언제든 옆에 두어야 마음이 놓인다는 그 가방 안에는 분만에 필요한 물품들이 완벽히 갖추어져 있었다.

“저는 아이 둘을 모두 병원에서 낳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분만하는 임산부들이 솔직히 부러워요. 이렇게 행복하게 태어난 아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까요 궁금하고요. 안정적인 환경에서 편안하게 세상에 나온 아기들은 분명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랄 것 같아요. 이런 아기들이 많아질수록 세상도 좀 더 평화로워지겠죠?”

이런 꿈과 보람이 있으니 그는 힘든 길도 아무렇지 않게 갈 수 있다. TOP

글 최선희 TOP CLASS 객원기자 | 사진 김현희

068 TOP Class 200604